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Venture Global, LNG선 발주 채비

미국의 신규 LNG생산업체 Venture Global LNG가 LNG선 13억달러이상 규모 6척(3+3)을 발주할 계획임. 2022년 3월까지 발주할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2021년 LNG선 발주 사상 최대

2021년 LNG선이 최소 70척 발주되며 최대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QatarEnergy 발주 척 수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LNG시황은 밝지만, 선가가 1년새 1.85억달러에서 2.2억달러로 상승하며 선주들이 발주를 고민하게 됨. (선박뉴스)

일본 선주들, 투자 움츠려

일본 선주들의 신조선 투자가 줄어듦. 2021년 YTD 신조선 투자금액은 74억달러로 전년대비 2억달러 감소함. 반면, 프랑스, 대만 선주들의 투자금액은 12배 이상, 중국 선주들의 투자액은 전년금액의 +55% 증가함. (선박뉴스)

'20일새 86척에서 30척대로' 美 LA·롱비치 체선 빠르게 개선

미국 서안 항만의 물류적체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항만당국은 장기적체화물에 부과하는 벌금 도입 시기를 또 늦춤. 6일 기준 LA항, 롱비치항에서 입항 대기 중인 선박은 전월대비 50척이 감소한 35척을 기록함. (코리아쉬핑가제트)

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에 2000억원규모 투자...생산능력 키운다

현대건설기계가 울산공장 생산규모 확대 및 제조공정 간소화 등에 4년간 1,941억원 투자계획을 발표함. 신규 설비 도입 및 조립라인 증축투자로 건설기계 장비 4,800대를 추가 생산하게 될 것임. (조선Biz)

전력난 이어 확진자 급증...문 닫는 중공장

전력난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했던 중국 공장들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공장을 닫고 있음. 제조업 중심 기지인 저장성에서 13개사가 운영중단함. 운영중단이 장기화되면 중국 경기 둔화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음. (매일경제)